

일본시장을 통해 본 자판기의 사회적 요구 대응

자판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가. 자판기 운영자나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영업용기기로서의 수익성에 우선적으로 포커스가 맞추어 진다. 수익성이 어필이 되어 기계가 많이 판매되고 운영자도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 당연히 자판기 산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이자 이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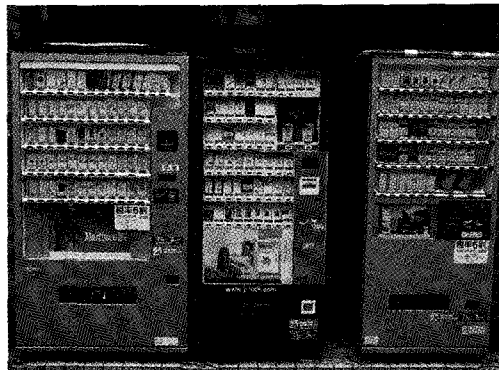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가. 획기적인 아이디어 지향적 제품이거나 유인 유통구조와 차별성을 가진 독특한 내용상품 판매만을 가지고 자판기 수익성을 만족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자판기 시장을 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여기에 머물러 왔다. 자판기 자체와 소비자의 연결고리를 산업계 일방적으로 수익성 측면으로만 결부를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한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또 수익성을 자판기가 취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 너무도 무신경했다. 자판기와 소비자, 더 넓게 봐 사회와의 소통이 쌍방향으로보다 산업계 전횡의 획일성을 지금까지 지향해 왔다. 물론 이는 성장지향적인 산업단계가 가질 수 있는 한계이다. 양적이고 시장확장성이 우선이 되는 단계에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까지 고려하기 힘들다. 국내 자판 산업도 자연스레 이 단계를 밟아 왔다. 그저 매출지향적이고 수익지향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그 질주는 제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

었다. 그러나 그 질주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점점 그 가속력이 떨어지고 예기치 않는 장애물에 급제어를 했다가 다시 출발하기도 하는 상황이 현재판산업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원인을 시장성만을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이라는 측면, 또 자판기의 효용 및 존재가치를 시장성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혼란만 올뿐 답을 찾을 수 없다.

자, 이제는 뒤바뀐 시각에서 보자. 소비자와 사회는 왜 자판기를 필요로 하는 가. 자판기라는 무인서비스기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자판기의 존재가치가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고 편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높여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수익성만을 보고 있는 산업계의 이기로 인해 점점 다양해지고 참여화되는 소비자와 사회적 니즈에 무신경, 무책임한다면 자연스럽게 자

판기의 필요성 자체가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자판기 산업이 점차 그 단계로 치달고 있다. 수익성만 중시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존재가치와 대우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자판기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한 것도, 곳곳에서 존재가치를 약화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 부분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앞으로의 자판기 시장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환경, 절전, 리사이클, 경관과의 조화, 안전, 방범, 위생, 청소년보호, 장애인 배려 등에 있어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말한다. 타율적이 아닌 산업계 스스로 자판기가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더 나아가 자판기가 주체적으로 사회적 필요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진정한 자판기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나라가 바로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은 자판기 산업 선진국에 걸맞게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며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예는 우리의 자판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자판기 산업도 이제는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판기가 보급이 늘면 늘수록 사회적인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국내 자판기 산업을 살펴봐도 재활용, 청소년 문제, 절전대책, 위생, 도난방지 등에 있어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장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의 원인도 크게 보면 자판기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한데서 찾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산업계

가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해 나간다면 산업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 될 수 있다.

이 과제에 있어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길은 멀고 험한데 아직 그곳으로 가야한다는 산업계의 공감대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먼 시각으로 자판기의 미래를 보며 자판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며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특별기획에 소개되는 일본의 사례들은 국내 자판기 산업에 있어서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리라 보인다. 나라는 달라도 자판기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사회적인 요구에의 대응을 면밀히 벤치마킹하여 국내 자판기 산업의 현실에 맞는 안들을 집중 강구해 나가야 한다.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마인드 고취가 전제되어야하고, 협회가 그 정책마련의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국내에도 하루 빨리 이러한 대책마련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일본시장을 통해 본 자판기의 사회적 요구 대응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

◆ 에너지 절약

자판기의 소비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0.7%

일본시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자판기의 연간 총 소비 전력량(2001년)은 약 74억koh이다. 이 값은 일본 국내 연간 총 발전량(2001년 1조759억koh)의 0.7%에 지나지 않는다. 자판기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사회 시설이며, 유통 합리화에도 많이 공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소비 전력량은 과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자판기 메이커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유한한

자원 에너지의 유효 이용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전력량의 절감화에 임하고 있다.

음료 자판기의 소비 전력량을 반감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1991년 제1차 소비 전력 절감 계획을 책정해 1996년까지 캔 음료 자판기 1대 당 소비 전력량을 평균 20.4% 절감했다. 지속적으로 1996년 제2차 소비 전력량 절감 계획을 책정해, 2001년의 목표년에는 16.2% 삭감했다. 동시에 시장에 있어서는 예코 벤티의 보급, 조명의 감광을 실시해 한층 더 에너지 절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캔음료자판기가 에너지 절약법에 따르는 특정 기기에 추가 지정되어 탑러너 방식에 의한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그 결과 목표년도인 2005년에는 캔 음료 자판기의 소비 전력량은 2000년 대비 약 30% 절감할 전망이다. 이것에 의해 가장 보급 대수가 많은 캔음료 자판기 1대 당 소비 전력량은 15년간에 53.3% 절감하게 된다.

※ 에코 벤더는 자판기 메이커와 전력회사, 음료 메이커가 공동 개발해 1995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피크 쉬프트'기능을 가지는 에너지 절약형 캔 음료 자판기이다. 피크 쉬프트 기능은 여름철(7~9월)에는 적재함의 음료를 충분히 차게 해, 전력 수요의 피크 시인 오후 1~4시에는 냉각 운전을 스톱시켜 냉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설치 대상이 되지 않은 핫카이드를 제외한 전국의 캔 음료 자판기 대부분에 에코 벤더가 보급되고 있다.

※ 조명의 감광: 자판기 메이커는 타이머나 광감지 센서 등에 의해 조명을 낮에는 자동적으로 소등하는 시스템을 채용해 왔다. 다만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을 진행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이후에 신규 개발한 음료, 담배 자판기의 조명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수준보다 인버터나 조광기 등에 의해 50%선을 차단하고 있다.

◆ 리사이클

사용이 끝난 자판기의 리사이클 자판기는 중량의 70~80%가 철제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이 끝난 자판기의 폐기에 즈음해서는 자판기 철제 금속은 회수되고 자원리사이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정부의 3R(Reduce=리듀스, Reuse=리유스, Recycle=리사이클) 정책에 준거해, 리사이클(재자원화)에 머무

는 일 없이, 사용 자원과 폐기물의 리듀스(자원 절약화), 부품이나 장치의 리유스(재사용)를 추진 목표로, 자판기 본체 구조 개선에 의한 장기 수명화, 소재나 부품의 표준화·모듈화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빈용기의 리사이클

자판기로부터 팔린 음료의 빈용기에 대해서는, 음료 메이커가 전국청량음료공업회의 자판기 자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근거, 음료자판기 사이트에 빈용기 회수 박스를 부설해, 회수·적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 프레온

프레온 대책

「특정 제품과 관련되는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 실시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통칭, 프레온 회수·파괴법)이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프레온의 대기중 방출을 금지함과 더불어, 음료자판기나 카 에어컨 등의 냉매 사용기기 제조사업자는 환경 부하가 없는 냉매를 사용한 기기 개발을 의무화했다. 또한 이러한 기기의 사용자인 음료 메이커 등은 프레온의 적정 회수·파괴를 각각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1999년부터 신규 출하하는 음료 자판기의 냉매를 오존층 파괴 계수 0으로 지구 온난화 계수의 낮은 HFC(저정 프레온)로 차례 차례 변환, 2001년에는 이행을 완료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이 없는 논후론 냉매에의 조기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음료 자판기의 폐기에 즈음해서는 음료 메이커나 오퍼레이터가 프레온을 적정한 방법으로 회수해 파괴 처리하고 있다

◆ 폐기

사용이 끝난 자판기의 적정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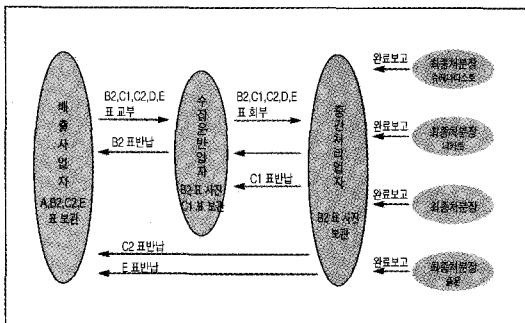
사용 종료가 된 자판기는, 소유자인 내용 상품 메이커나 오퍼레이터등이 배출 사업자가 되어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산업 폐기물로서 적정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부품 등을 사전 선별한 후, 슈레더(파쇄기)로 파쇄 처리되어 철이나 알루미늄은 재생 자원으로서 리사이클 된다. 그 외의 것은 슈레더 더스트(shredder dust)로서 관리형 처분장에 매립할 수 있다. 배출 사업자인 내용 상품 메이커등은 자판기 마니페스트(산업 폐기물 관리표)를 교부·관리해, 이것들 일련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진 것을 확인하고 있다.

※ 사전 선별이란 폐기물로부터 유해 물질을 포함한 부품·장치 등을 미리 떼어내, 환경성에 의한 사전 선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판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사전 선별되고 있다.

- ▶수은을 포함한 형광관
- ▶카드를 포함한 니카드 전지
- ▶프론가스

※ 자판기 마니페스트의 흐름



◆ 경관과의 조화

자판기 업계에서는 자판기 경관 대응 추천색을 설정

해 풍치 지구, 주택지구 등 자판기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지구에서 도입하고 있다.



2 안전

◆ 전도방지

자판기의 전도 방지책

지진 등에 의한 자판기의 전도 방지책으로서 JIS기준 규격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JIS B 8562 : 1977년 제정, 1996년 7월 개정) 및 이를 보완한 업계 자주 기준 「자동판매기의 옥내 설치 기준」(1988년 2월 제정, 1995년 9월 개정) 등이 규정되고 있다. 이 규정의 준수에 의해 자판기는 진도 6 정도의 지진에서도 전도를 방지할 수가 있다.

※ 설치 방법

설치 방법은 원칙으로서 고정 쇠장식과 나머지 시공 앵커에 의해 자판기의 각부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앵커 볼트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나 옥내에 있어 자판기 각부에 전도 방지용 철판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

※ 내진성

내진성으로서는 옥외 설치에 대해 일률적이어 설계 용수평 진도KH=0.4, 설계용 연직 진도KV=1/2KH가 규정되고 있다.

옥내 설치에 있어서의 내진성은 설치하는 계수에 의한 다른 설계용 표준 진도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 ▶1층 및 지하층 KS=0.4
- ▶2층 이상 KS=0.6
- ▶최상층 및 옥상 KS=1.0

※ 설치면

설치면은 이하의 사항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1. 설치면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1) 설치면의 시공 방법

- 밤자갈돌을 깬 후에, 데용의 자갈을 깔아, 충분히 다지고 굳힌 지반을 만든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평탄한 설치면을 만들 것
- 밤자갈석층은 100mm이상, 콘크리트 층의 두께는 100mm이상으로 하는 한편 나머지 시공 앵커의 천공 깊이의 2배 이상, 지표면으로부터의 매입 치수는 70mm이상
- 나머지 시공 앵커의 매입 치수는 나머지 700mm이상으로하는 한편 시공 앵커의 천공 깊이의 2배 이상으로 하는 것
- 콘크리트를 박은 후,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게 그리고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등을 더하지 않게 해 일정기간 이상 요양하는 것. 요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출면을 적신 옷감, 모래 등으로 가리는 방법이나, 살수 하는 등 방법을 사용. 요양 날짜는 계절, 시멘트의 종류 등에 의해 다르지만 최저 5 일간은 행하는 것

(2) 설치면의 넓이

- 설치면의 넓이는 자판기 본체의 각부, 고정 쇠장식, 나머지 시공 앵커 등이 초과하지 않는 한편 나머지 시공 앵커의 최소 빈 곳 치수 등의 설치 허용 치수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이인 것
2. 설치 조정 후의 자판기의 기울기는 1도이내인 것.
 3. 콘크리트의 강도는 4주 압축 강도 18N/m이상인 것.
 4. 콘크리트의 두께는 천공 깊이의 2배 이상으로 하는 한편 최소 두께가 100mm인 것.
 5. 콘크리트의 질량은 전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것.

◆ 방법

자판기의 방법 대책

자판기 범죄는 근래 증가 경향에 있어, 경찰청에 의하

면 2002년의 인지(신고)건수는 17만 건을 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문 비틀어 열거나 자물쇠 파괴 등 폭력적인 수법에 의하는 것과 위조·변조 통화에 의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폭력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자판기 견뢰화 기술기준을 책정해 하드면에서의 대책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위조·변조 통화에 대해서는 경찰·통화 당국의 협력 하에 기술적 정보를 입수해 지폐식별장치·동전선별장치의 프로그램 변경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자판기 견뢰화 기술 기준

자판기 견뢰화 기준은 1996년 8월에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서는 옥외 설치 음료 및 담배자판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손으로 운반을 할 수 있어 염가·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공구에 의해 문을 비틀어 열거나, 자물쇠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판기 본체의 강화해야 할 부위의 특정과 그 부위의 재질, 강판 등의 두께, 구조, 방어 성능의 시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기준은 범죄 수법의 변화 등을 감안해, 수시 재검토되고 있다.

※ 지폐 식별장치, 동전선별장치의 프로그램 변경

지폐식별장치나 동전선별장치는 삽입된 지폐나 투입된 동전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읽어내, 미리 프로그램 된 진화 정보와 조합해 진위 판별을 한다.

지폐나 동전은 유통단계에서 훼손되거나 마모되거나 한다. 지폐식별장치나 동전선별장치는 이러한 통화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되는 진화 정보는 발행 직후의 정보에 일정한 허용 범위를 갖게 한 것이 된다.

자판기로 사용된 변조·위조 통화는 특성이 이 허용 범위에 있다. 기기 메이커는 경찰·통화 당국으

로부터 제공되는 기술 정보를 기초로 위조·변조 통화의 특징을 파악해 이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위조·변조 통화의 작성 방법을 시사하는 악질 잡지나 홈 페이지에 의해, 위조·변조 통화의 특징은 한없이 진화에 가까워져, 기기에서의 배제는 지극히 곤란하게 되었다.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1999년에, 500엔 유사 외국 동전에 의한 자판기 털기 대책의 일환으로서 대장성(현재무성)에 500엔 동전의 개주를 요청해, 다음 2000년 8월부터 신500엔 동전이 발행되고 있다. 이 결과 1999년에는 85만매 이상 사용된 변조 외국 동전이 2002년에는 약 5000매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2001년 가을 이래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 대책의 일환으로 재무성에 대해 지폐의 변경을 요청해 2004년도의 상반기에는 1만엔, 5천엔, 천엔의 3권종이 변경되게 되었다.

◆ 식품위생

식품(음료를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자판기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식품위생법 동법에 근거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업계 자주 기준 「자동판매기의 식품위생에 관한 자주적 취급 요령」 등에 의해 자판기의 기능·구조, 영업 허가, 관리 운영 등이 규정되고 있다. 자판기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 자판기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 자판기와 관계되는 영업 허가

음식점, 찻집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영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정령 지정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자판기에 관계하는 영업으로서는 음식점 영업, 찻집 영업, 유류 판매업, 빙설 제조업, 식육 판매업

이 있어, 이하의 자판기가 대상이 된다.

- ◎ 음식점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것 : 햄버거 자판기, 전자 렌지부 냉동식품 자판기, 급탕 장치부 컵라면 자판기, 도시락 자판기 등.
- ◎ 찻집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것 : 컵식 커피자판기, 컵식 청량음료 자판기 등
- ◎ 유류 판매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것 : 우유자판기
- ◎ 빙설 제조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것 : 얼음자판기, 감얼음 자판기
- ◎ 식육 판매업 : 냉동 포장 식육자판기

덧붙여 캔·병 등의 청량음료 자판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다. 이것은, 캔·병 등의 음료가 제조·판매 단계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는 규격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 바리어프리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1997년에는 승차권자판기에 대해, 1999년에는 음료·담배 자판기에 대해 각각 바리어 프리 설계 지침을 책정, 신체장애자의 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자판기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바리어 프리 설계 지침에서는 동전 투입구, 지폐투입구, 상품투출구, 표방출구, 거스름돈 투출구 등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층 더 승차권 자판기에 대해서는 점자 쉘의 첨부 위치, 하부에 휠체어의 footrest용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것, 숫자 패드를 장비하는 경우에는 푸쉬 버튼 배열로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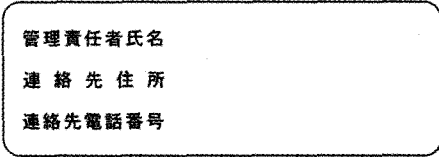
◆ 통일 스티커

자판기에는 관리자 이름, 연락처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를 기입한 자판기 통일스티커가 첨부되고 있다. 이것은 자판기의 관리 체제를 명확하게 해 소비자의 자판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975

[특별기획]

년 통상산업성(환경제 산업성), 농림수산성, 대장성(현재 재무성), 후생성(현후생노동성)의 4성 공동 통지에 의해 의무화되었다.

※ 자판기 통일 스티커



※ 4성 공동 통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통일 스티커 첨부 실시 요강(일부 개정)

쇼와50년 12월 제정
헤세이 2년 3월 개정

대장성
후생성
농림 수산성
통상 산업성

자동판매기의 관리 책임 체제를 명확하게 해, 아울러 소비자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통일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1. 통일 스티커의 내용

(1) 표시 사항

- 관리자명
- 연락처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주) 1. 관리자란 자동판매기의 소유 유무를 불문하고 내용 상품의 보충, 매상 대금의 회수 등 해당 자동판매기에 관계되어 일상의 관리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덧붙여 식품자동

판매기에 있어서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연락처 주소 또는 연락처 전화번호란 해당 자동판매기에 관한 이용자로부터의 상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소재하는 곳 또는 그 전화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관리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3. 표시 사항은 흑 잉크 등에 의해 명료하게 표시한다.

(2) 치수

세로 5cm이상 옆14cm이상

(3) 재질 등

스티커는 파손, 경년 변화가 생기기 어려운 재질의 것을 이용해 기재사항의 잉크가 사라져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커를 플라스틱제 투명 필름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첨부 대상 자동판매기

아래와 같이(1)~(5)를 제외하는 모든 자동판매기 덧붙여 복수의 자동판매기가 동일 개소에 연속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대마다 붙인다.

(1) 역의 승차권 자동판매기

(2) 코인 로커

(3)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편 관리자가 상주해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는 자동판매기(예를 들면 점포내의 식권자동판매기 같이 이용자의 상담 등에 관리자가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주류 자동판매기

(주) 주류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에세이 원년 국세청 고시 제 9호에 의한다.

(5) 쌀 자동판매기

(주) 쌀 자동판매기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쇼와 57년 4월 1일 식약청 장관 통지 57식량업 제

637호(미국 판매업자와 관련되는 업무 운영 기준의 운용에 대해)에 의한다.

3. 첨부 위치

기계 정면 보기 쉬운 위치, 원칙으로서 동전 등 투입 구 주변

4. 첨부자

원칙으로서 해당 자동판매기의 관리자

5. 공급

- (1) 신규 생산되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기계 제조업자가 통일 스티커를 첨부해 출하한다.
- (2) 붙여 바꾸는 용도의 스티커에 대해서는 자동판매업자(오퍼레이터), 내용 상품 공급 업자, 자동판매기 보안 정비 업자 등의 자동판매기 관련 사업자 또는 업계 단체가 각각의 유통경로, 회원 등을 통해서 그 입수방법을 관리자에 대해 주지하는 등 공급 체제의 정비에 노력한다.

6. 실시 시기

헤세이 2년 4월 1일

7. 경과 조치

헤세이 2년 3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자동판매기(기 설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통일 스티커에 의할 수가 있다.

8. 그 외

자동판매기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해당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에 관계되어, 이하의 점에 유의한다.

- (1)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JIS B 8562)을 준수함과 함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민간 관계 단체가 작성한 「자동판매기의 옥내 설치 기준」의 실시 노력한다.

그리고 도로상에는 사고 내는 일이 없게 충분히 주의한다.

- (2)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설치 보틀이 느슨해져, 열화 등의 경년 변화 상황이나 통일 스티커가 벗겨져 기입 사항이 사라지는 문제 등에 대해 일상의 점검에 노력한다.
- (3) 음료 및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빈 강통 등의 산재를 막기 위해, 빈 강통 등 회수 용기를 비치하는 등 주위의 환경미화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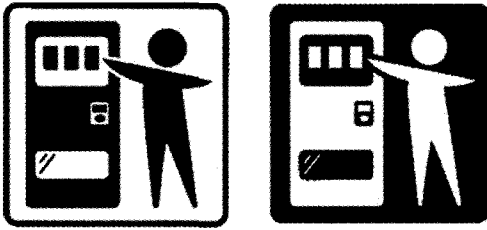
◆ 소비자 표시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음료자판기와 담배자판기에 있어서의 「자판기의 소비자용 표시와 그림 기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2001년 10월 이후에 출시되는 기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당황하는 일 없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메이커 마다 차이가 난 소비자용 표시에 관한 표기 및 그림 기호를 통일화한 것으로 동전 투입구, 지폐 삽입구, 반환구, 반환 레바, 상품 투출구 등 27항목(집도 기호 10항목)이 표시됩니다.



◆ 픽토그램



자판기 픽토그램은 자판기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입니다.

자판기 픽토그램은 로케이션(자판기 설치 장소)오너, 공공시설 관계자, 내용 상품 메이커, 오퍼레이터 등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색, 크기, 도안의 반전은 자유이다.

※ 자판기 픽토그램 사용사례



4. 미성년자

◆ 자판기의 미성년자 대책

술과 담배 자판기는,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아침 5시까지)가동을 정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류판매, 담배판매 업계의 자주규제에 근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양업계와 각각 협력해 연령 식별 장치를 탑재해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개량형주류자판기, 성인식별 기능부 담배자판기를 개발해 보급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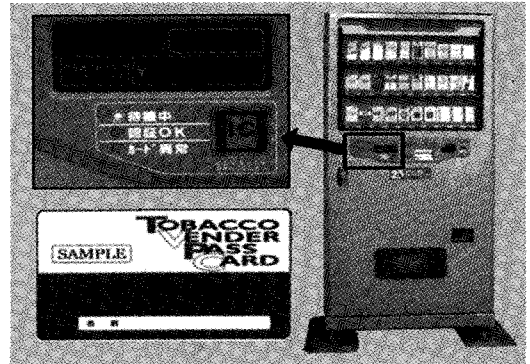
◆ 담배자판기

성인식별 기능부 담배자판기

성인식별 기능부 담배자판기는, 일본담배협회, 전국담배판매협동조합연합회, 일본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 미성년자 흡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식별 시스템 운영 센터」가 성인에만 발행하는 비접촉형 IC 카드의 인식 장치를 탑재,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3단체에서는 2002년도에 치바현 오투카이치바시에서 행해진 도입 검증 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해 2003년부터 5년간에 전국에 약62만대 보급되어 있는 담배자판기를 차례차례 교체해, 2008년부터 전국에서 일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성인식별 기능부 담배 자판기 사진



◆ 주류자판기

개량형주류자판기

주류판매업계에서는 헤세이 2000년 6월부터 국세청의 지도에 의해 옥외 설치된 종래의 주류자판기를 철폐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개량형주류자판기로 교체를 진행시키고 있다. 개량형 자판기란 운전 면허증이나 ID 카드를 이용한 연령 식별 장치를 탑재해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중지시키는 시스템이다.